

‘관객’을 넘어 ‘참여’로 ... 푸른연극마을 시민연극 프로젝트

‘낭독극장’ ‘10분 연극’

연극과 함께하는 소설 읽기
22일부터 조지 오웰 ‘동물농장’

함께 희곡 쓰고 연습 통해 작품 완성
두 달에 한 작품 씩...올 6 작품 제작

지난 2014년,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광주 동명동에 ‘연바람 씨어터’를 개관했다. 문을 닫은 지 10여년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출발점에 선 셈이었다.

자체 극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실험을 해온 오성완 대표는 극장이 활성화되고, 지역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객들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극장에 올리는 작품을 연극으로만 한정 짓지 않고 지난해 오페라와 결합 등 다양한 장르간 협업을 시도했던 것도 타 장르 관객을 흡수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관객’의 자리를 넘어 직접 ‘참여’할 때 그 효과가 크다고 봤다.

푸른연극마을은 올해 시민연극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지금까지 주부극단, 청소년 극단 등을 간헐적으로 운영해온 푸른연극마을은 ‘낭독극장’과 ‘10분 연극’이라는 새로운 기획을 시작한다.

연극과 문학이 만난 ‘낭독극장’은 상상력 등을 통해 소설을 연극적으로 해석하고 입체적으로 읽는 구조다. 그냥 책으로 소설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른 감성을 전하는 형식으로 서울 등지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낭독공연이 무대에 올려지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자주 만나기 드물다.

‘낭독극장’은 때론 낭독을, 때론 연기를 통해 소설을 새롭게 읽는 방식으로 극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 영상과 음악, 조명효과, 소품 등이 어우러지면서 진행된다.

첫번째 작품은 ‘동물 농장’이다. ‘1984’로 유명한 조지 오웰의 대표작으로 동물농장을 통해 정치 현실을 풍자하는 작품이다.

극단측은 낭독극을 함께 할 시민배우를 모집중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마

감은 오는 20일까지다. 오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2회 진행되며 5월 30일과 31일 완성작을 씨어터 연바람에서 공연한다. 낭독극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월말께 참가자를 모집하는 ‘10분 연극’도 새롭게 시도되는 프로젝트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테마를 정한 후 함께 희곡을 쓰고, 연습을 통해 말 그대로 ‘10분 짜리’ 연극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대학교 시절 MT 가서 진행했던 촌극이나 콩트 같은 형식을 생각하면 된다.

최근에 다양한 아마추어 극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난생 처음 연극을 접하는 이들이 60분 분량의 극을 만드는 건 벅찬 것도 사실이다. 연극에 관심 있는 이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이다.

오세혁씨 등 희곡 작가들과 함께 직접 대본을 쓰고, 연습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두 달에 한 작품씩 제작해 연말에는 여섯 작품을 모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오성완 대표는 “프로 배우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과 작업을 할 때 색다른 감성과 개성을 느낄 수 있다”며 “새롭게 시도하는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공연장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관객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연극마을은 연바람 씨어터에서 1년에 두차례 이상 공연할 상설 공연 단체도 모집하고 있으며 4월께 상설단체 페스티벌도 진행할 계획이다.

2016년 푸른연극마을의 첫 작품은 오는 26일부터 공연되는 로맨틱 코미디 ‘도둑과 연애’다.

푸른연극마을 홈페이지(blog.naver.com/greentheater). 문의 062-226-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푸른연극마을이 지난해 공연한 ‘파우스트’

신영복 ‘처음처럼’ 개정판 22일 출간

초판본에 글·그림 90편 추가

예약판매 이벤트·추모행사도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생전에 ‘다시 쓰고 싶은 편지’라고도 표현한 ‘처음처럼’ 개정판이 22일 출간될 예정이다어서 책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책은 신 교수가 병환 중에도 마지막까지 개정판 작업에 매달려 문장을 다듬고 그림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그의 유작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을 펴내는 출판사 돌베개는 13일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 책의 목차를 공개하고 예약 판매를 개시했다.

초판은 원래 3부로 구성됐으나 개정판은 4부 215편으로 구성됐다. 초판본에는 없던 새로운 글과 그림이 90편 이상 더해졌다. 전체적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더해졌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개정판이 아닌 ‘개정신판’이라는게 출



판사 설명이다. 출판사 한 관계자는 “1부는 초판과 거의 비슷하고 2부는 화분, 들꽃 같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에 대한 소박한 글과 서예작품이 더해졌다.특히 3부에는 선생님께서 ‘인생 공부’를 했다고 말한 감옥에서의 에피소드가 많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출판사는 예약 구매 고객에 한해 1만권 한정으로 저자의 육필 산문 ‘청구회 추억’ 영인본을 제공하는 예약판매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청구회 추억’은 저자가 1969년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복역하던 중 하루 두 장씩 지급되던 재생휴지 위에 볼펜으로 짚적 놀러 자신의 심경과 생활 등을 기록한 것이다. 또 내달 중순께 출간 기념회를 개최하고 팟캐스트 등을 활용한 추모행사도 기획 중이다.

/연합뉴스

유·스퀘어 20일 프리마켓 ‘아름다운 예술시장’

유·스퀘어가 오는 20일 2층 야외광장(유·테라스)에서 프리마켓 ‘아름다운 예술시장’을 개최한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지역 작가들이 제작한 비누, 옷, 팔찌,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하고 소규모 공방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매일 셋째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열린다.

첫 장터를 연 후 매회 지역작가 30여팀과 행사를 이어온 유·스퀘어는 자격제한 없이 예술시장 참여를 받고 있다. 누구나 셀러로 작품을 판매하거나, One Day 작업 공방을 열어 자신의 기술을 나눌 수 있다. 또한 공연을 원하

는 밴드는 예술시장이 열리는 날 야외광장에서 직접 공연도 할 수 있다.

한편 예술시장은 참가 수수료가 없는 대신, 지역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작가들이 자율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광주문화재단에 기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담당자 메일(sekmax27@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다음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3월19일에 개최된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016 창의예술학교’ 문화예술교육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 4개 단체 선정

단체당 최고 2500만원 지원

광주문화재단은 삶 속의 다양한 문화예술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연결해 실천적 교육으로 풀어가는 삶의 경험학교 ‘2016 창의예술학교’를 이끌어 나갈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를 모집한다.

2016 창의예술학교’는 단체의 창의적인 기획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며 4개 단체를 선정해 강사비, 교육진행비 등 단체당 1800만원~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다.

전체 프로그램은 25차시 내외로 자유로운 예술 실천 활동과 일상에서 예술을 이끌어 내는 활동 등을 담고 학교 밖의 또 다른 학교모델 정립, 예술·인문·철학이 강조된 교육과정을 설계하면 된다. 최종선정된 4개 단체 중 1개 단체를 운영사무국으로 지정해 운영협의회 운영, 결과발표회 등 총괄진행 역할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소담방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576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창의예술학교 행사 모습.

광주 성공회문화센터, ‘청노루 글쓰기’ 수강생 모집

3월 7일부터 ... 무료 과정

강사는 조선대 김영학 교수

지난 2010년부터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 성공회문화센터가 올해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올해 강의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5주 과정(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으로 진행되며 일상의 기록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나를 찾고자 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사는 조선대 김영학 교수(사진)로 문장 및 단락 쓰기, 묘사 및 서사 쓰기, 일상 기록하는 법, 에세이 쓰는 법, 글쓰기 치료 등을 배울 수 있다.

전화(010-5642-9263)로 신청하거나, 다음 카페 ‘청노루글쓰기’ 공지사항에 댓글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선착순 30명 모집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NPL매입●NPL매●NPL중개●NPL질권대출●경락잔금대출●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낙잔금대출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